筆巖書院의 建築 變遷過程에 關한 硏究

趙相淳
(국립문화재연구소 미술공예연구실)
李相海
(성균관대학교 건축공학과 교수)

1. 서론 : 연구의 동기 및 목적

서원건축에 관한 기존의 연구는 대부분이 연구 대상 서원의 현재의 건축 공간과 배치 형식에 근거하여 이를 그 서원의 主享者의 유학 사상 또는 지역성 등과 관련시켜 해석하거나 서원건축 형식을 분류하고 있다. 그런데, 전라남도 장성에 위치한 筆巖書院의 경우 몇 차례에 걸친 이건 과정에 나타난 공간 형식과 배치 내용에서 서원건축의 해석에 관한 기존의 견해를 재검토케 하는 단서를 제공한다. 본 논문에서는 필암서원의 건축 변화 과정에 나타난 내용을 통하여 서원건축의 공간과 배치 형식에 대한 기존의 해석을 재조명하였다.

필암서원은 정읍의 武城書院과 함께 호남 지역의 서원을 대표하는 그 규모가 비교적 큰 서원이다. 필암서원은 河西 金麟厚(1510-1560)를 主壁으로, 鼓巖 梁子澂(1523-1594)을 從享으로 배향하고 있는 서원이다.[1] 조선 말기 흥선대원군의 서원 철폐령 때에도 철폐되지 않고 존속한 서원으로, 현재는 열 여섯 동의 건물들로 구성되어 있다.

필암서원은 창건 이후 두 차례 이건을 하였는데, 각 이건 장소는 입지조건에서 몇 가지 공통점과 차이점을 가지고 있다. 대표적인 공통점으로는 <그림 1>에서 볼 수 있듯이 서원 창건 이후 지속적으로 合水되는 지역에 터를 잡고, 또 다리를 건너 진입하게 되어 있는 점을 들 수 있다. 이러한 현상은 서원건축의 일반적인 터잡기와 관련된 하나의 경향으로 볼 수 있다. 그리고 차이점으로는 현재 필암서원이 위치하고있는 지역이 평지인 반면, 그 이전의 건립장소는 두 곳 모두 경사지였다는 점을 들 수 있다. 그런데 필암서원이 경사지에 건립되었다가 현재의 위치로 이건했다는 단서를 현재의 건축물 중에서도 찾을 수 있어서 서원건축의 배치형식을 해석할 때는 그 역사적 변천

1. 金麟厚는 조선 중기 문신이자 유학자로 본관은 울산, 자는 厚之이다. 모재 김안국의 문인이며 小學과 修己治人을 중시하였고, 정조 20년(1796)에 文正이라는 시호와 함께 문묘에 陞配되었다. 梁子澂은 자는 仲明, 본관은 濟州이다. 하서의 사위이자 문인이며 같은 문인이었던 기효간, 변성온과 함께 필암서원 창건에 참여하였다. 정조 10년(1786)에 장성 유림의 발의로 필암서원에 배향되었다.

과정을 함께 조명해야 한다는 사실을 제공한다.

본 연구에서는 필암서원의 건축물 구성 및 그 변화 과정에 대하여 『筆巖書院誌』(全 13권)와 『河西全集』(全 4권), 그리고 기타 관련 논문과 사료 등을 참고 자료로 하여 살펴보았다. 이와 함께 필암서원의 창건 및 이건된 터의 주변 환경에 대하여 고찰하고, 건축물 각각의 건립 연대와 연혁을 조사하였으며, 또 이를 바탕으로 하여 건축 공간구성의 변화 과정을 살펴 보았다.

2. 필암서원 건축의 복원적 고찰

2-1. 입지 환경 및 터에 대한 고찰

필암서원은 전라도 岐山, 현재의 전라남도 장성군 황룡면 기산리에 1590년(선조 23) 金麟厚書院으로 창건된 이후 두 차례에 걸쳐 이건을 한다. 김인후서원이 기산에 창건된 이유는 이 곳이 김인후의 고향인 맥동 근처라는 점이고, 또 다른 이유는 淵齋 宋秉璿(1836-1905)이 쓴 「筆巖書院 廟庭碑」에 "선생이 세상을 떠나신 삼십 일년에 문인 유림들이 기산 아래에 나아가 사우를 창립하여 羹墻 江漢의 사모를 붙였는데 그후 증산에 옮겨졌다."[2]고 언급되어 있듯이 이 곳의 입지조건 때문이다. '강한'은 『詩經』「大雅」편에 나오는 글로 모두 여섯 편의 싯구로 되어 있다. 강한의 주된 내용은 周代 宣王의 善政과 召虎의 공적에 대한 찬사이다. 이 싯구 중의 "양자강 한수 물 합수하는 곳 왕께서 소호에게 분부하시다(江漢之滸 王命召虎)"는 기산의 입지 환경에 비유한 부분으로 해석될 수 있다. 기산은 이러한 조건, 즉 물이 모여드는[合水] 지형을 한 곳이다.

필암서원이 첫번째로 이건된 곳은 기산에서 서쪽으로 얼마 떨어지지 않은 甑山, 현재의 장성군 황룡면 필암리 증산마을이다. 서원이 있던 증산마을은 현재 약 여덟 가구로 구성된 작은 마을이 들어서 있다. 기록에 의하면 약 300여년 전에 서원이 이곳에 있었다고 하며 마을이 형성된 것은 약 80여년 전이라고 한다.[3] 『筆巖書院誌』에 기록된 「祠宇 上樑文」에 의하면 인조 2년(1624) 이곳에 필암서원이 이건되었다. 따라서 서원의 형식을 갖추기 시작한 것은 이 시기 이후였을 것으로 추측된다. 이에 관한 근거로, 현종 3년(1662) '필암서원'으로 사액을 받고 '토지와 노비 등이 지급되었다'[4]는 기록과, 또 『筆巖書院誌』에 수록된 「院長先生 執綱案」의 기록이 현종 11년(1670)부터 시작되는 사실을 들 수 있다. 이는 講堂과 兩齋를 비롯하여 노비들이 거주할 부속사 등이 갖추어졌을 가능성을 제시해 주는 기록이다. 따라서 필암서원이 현 위치인 필암리에 두 번째로 이건된 시기가 현종 13년(1672)임을 감안 할 때 이미 증산에 위치하였던 필암서원은 그 건축적 규모를 이 시기에 갖추었을 가능성이 높다.

두 번째로 이건된 곳은 현 위치인 장성군 황룡면 필암리 원필암마을이다. 기록에 의하면 현종 13년(1672)에 물난리로 증산의 흙다리가 위험해지자 해타리로 이건한다고 되어 있다.[5] 여기서 해타리는 필암리의 옛 이름이다. 이후 필암서원은 건축물의 중수 및 증축을 하여 현재와 같은 건축 구성을 하게 되었다. 이상을 요약하면 두 번에 걸친 이건 과정에서 필암서원의 입지 환경에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점으로 合水하는 터를 선택하였다는 것과, 다리를 건너 서원으로 진입한다는 사실을 들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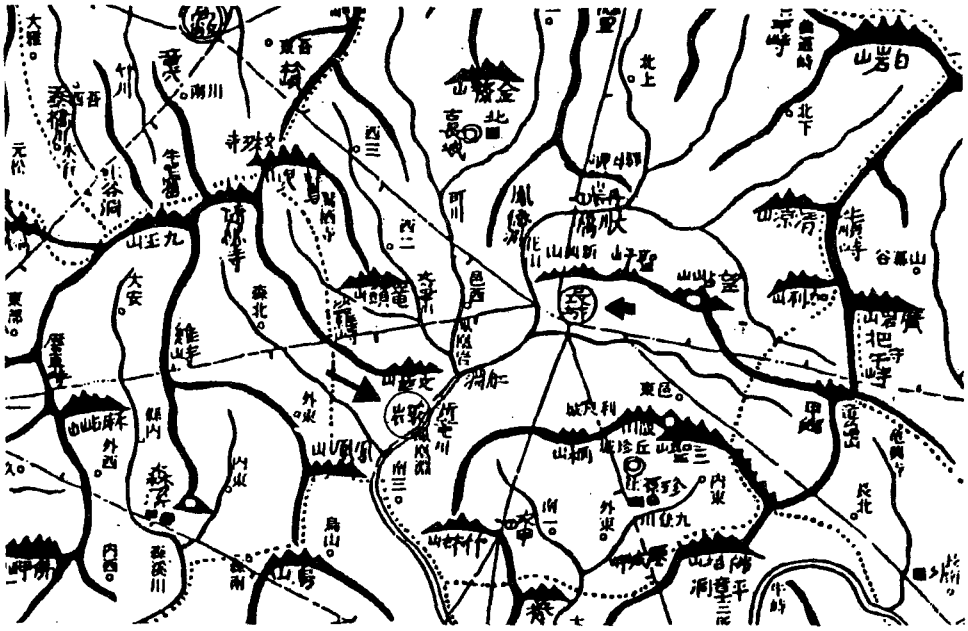
필암서원이 창건된 기산은 문헌 기록에서 정확한 위치를 언급하고 있지 않으나 서원이 들어선 형국은 상당히 넓었지만, 강당과 사묘의 기능을 모두 갖춘 서원 차원의 건축 규모를 갖추지 않은 사묘 중심의 서원이었을 것으로 추측된다. 그런데, 기산에 위치하고 있던 필암서원은 건립된 지 몇 년 되지 않아 정유재란(1597)으로 소실된다.

2. 『河西全集』 下卷 (筆巖書院, 1993), p.536.

3. 장성군사편찬위원회, 『長城郡史』 (광주일보출판국, 1982), p.951.

4. 『筆巖書院誌』 卷 · (필암서원, 1975), p.1.

5. 『筆巖書院誌』 卷 · (필암서원, 1975), p.1.



<그림 1> 장성 부근 대동여지도

그 터에 대해서는 『筆巖書院誌』에 '하서의 문인인 卞成溫, 奇孝諫, 金江齋 등이 공동으로 나무가 우거진 숲이 보이는 곳 그 가운데에 창건하였다'고 기록되어 있다.[6] 필암서원은 증산으로 이건된 인조 2년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강당과 사묘를 갖춘 서원이 된 것으로 추측된다. 그런데, 증산에 이건된 필암서원 터와 현재의 위치인 필암리에 마지막으로 이건된 필암서원 터는 그 대지 조건에서 큰 차이점을 지니고 있다.

필암서원이 기산에서 증산으로 이건된 것은 기산에 지어졌던 서원이 정유재란으로 소실된 것이 그 직접적인 이유였고, 두 번째 이유로는 제사를 지낼 곳이 좁고 경사졌기 때문이다. 증산에 이건하면서 지은 상량문에는 "이에 옛 풍속의 사당이 이루어지니 과연 어진 이 높일 장소가 생김을 보겠도다. . . . 오늘날 증건 할 일을 생각해 보니 옛 터를 복구함만 같음이 없도다. 新을 버리고 舊를 따르니 역사의 편의뿐만 아니요, 위를 버리고 안에 나아가니 실로 웅변의 지략이 많도다."[7]고 사당에 대해서만 언급되어 있다.

그런데 새로 잡은 증산의 대지 조건은 열악하였던 것으로 파악된다. 同春堂 宋浚吉(1606-1672)이 지은 「同春宋先生與文谷金相公書」에는 "장성의 서원은 하서 김인후 선생을 배향하고 있다. 그 대지가 원래 경사져 있어서 안전하지 못하므로, 여러 사람들의 뜻이 이건하기를 원하여 옮기려 하였으나 결과가 없었다. . . . 이번 여름에 그 院宇의 모든 室이 비로 인하여 무너지려 한다. 때문에 옛 서원에서 몇 馬場 떨어진 秋山 아래, 淸溪 위, 竹林 가운데로 옮기니 공사가 이미 시작되었다"[8]고 기술되어 있다.

여기서 증산의 필암서원은 역시 기산에서와 마찬가지로 경사진 대지에 세워졌음을 알 수 있다. 증산의 필암서원이 경사진 대지에 건립되었던 흔적은 평탄한 대지인 현재의 秋山에 이건하여 세운 건축물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6. 『筆巖書院誌』 卷 一 (필암서원, 1975), p.1.

7. 『河西全集』 下卷 (필암서원, 1993), pp.333-334.

8. 『筆巖書院誌』 卷 三 (필암서원, 1975), p.2.

현존 필암서원을 구성하는 건축물은 모두 열 여섯 동에 이르는데, 이중 門樓인 廓然樓는 평지임에도 2층의 누각 형식을 취하고 있다. 그런데, 현재의 필암서원 주 출입구 역할을 하는 확연루는 평지에 적합하지 않은 건축적인 내용 몇 가지를 지니고 있다.

첫째로 들 수 있는 것은 1층 문루 높이다. 약 1.8미터 되는 문루 높이는 조선시대 선비들이 갓을 쓰고 출입하기에는 매우 낮은 높이이다. 두 번째로 언급할 수 있는 것은 2층 누로 오르는 계단의 위치와 처리 방식이다. 확연루는 전면 3칸, 측면 3칸의 평면 구성을 하고 있다. 2층으로 오르는 계단은 현재 동측면 중앙칸에 나 있다. 그런데 현재 남측 전면과 동서 측면 중 남측 첫칸과 중앙칸에는 판장문이 달려 있으며, 계단은 동측면 외부에 설치되어 있다. 그리고, 이 계단은 좌측의 임시로 만들어진 손잡이를 잡지 않으면 안될 정도로 매우 가파르다. 이 계단 처리는 옥산서원이나 병산서원 등 경사지에 새운 다른 서원들에서 보는 것과 같이 2층 누로 오르는 계단이 건물 후면에서 지형차를 이용하여 쉽게 오르내리게 처리한 것과 차이가 있다. 또, 평지에 문루가 세워진 무성서원이나 남계서원 등의 누 출입 계단은 2층 누마루 아래에 설치되어 있는데, 필암서원에서는 이러한 방식을 취하지 않고 외부에 설치되어 있다. 이상의 내용을 고려하여 볼 때 2층 출입 계단은 판장문이 달려 있지 않은 동서 측면의 북측 칸이나 북쪽 면에 설치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이상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1층 문루의 높이, 그리고 2층으로 오르내리는 계단 처리 방식은 평지가 아닌 경사지에 적합한 것으로, 필암서원 관련 문헌에서 서원의 기본 형식은 이건 이전의 상태를 따랐다고 기록한 점 등으로 보아 현재의 확연루는 평지가 아닌 경사지에 세운 건축 형식을 취하고 있고, 계단은 현재의 문루 위치가 평지이기 때문에 이전의 형식을 따르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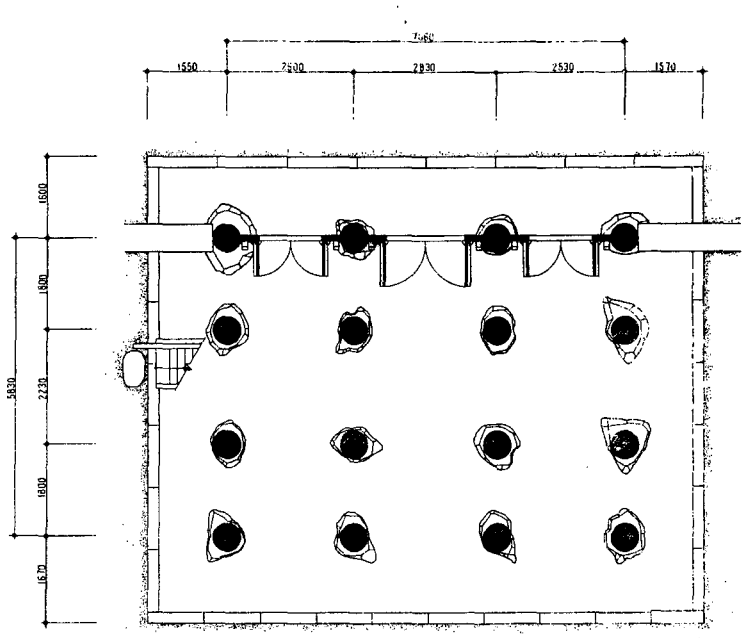
필암서원 확연루에 나타난 이러한 건축 형식은 매우 중요한 사실로서 서원 배치 형식에 관한 기존의 논의를 재검토하게 한다. 향교가 평지에 세워질 경우 상당수가 前廟後學의 배치를 하는 반면, 서원건축에서는 평지인 경우에도 前學後廟 형식으로 배치를 잡았으며 이의 대표적인 사례로 필암서원을 들고 있는 주장이 그 한가지 예인데, 필암서원의 경우 비록 현재 위치한 터는 평지이지만, 이건 이전의 터는 경사지였으며, 그 결과 현재의 확연루는 평지가 아닌 경사지에 세운 건축 형식을 따르고 있음을 고려해서 논의해야 할 것이다. 또, 필암서원, 덕봉서원, 봉암서원 등과 같이 前堂後齋식의 배치를 한 서원을 논의하면서 이들 서원의 특성은 앞이 낮고 뒤가 높은 前低後高의 지형인데, 필암서원만이 예외적으로 평지에 있다고 언급하고 있는 것도, 필암서원이 평지가 아닌 前低後高의 경사지에서 이전된 점을 감안할 때 이러한 논의 역시 재고되어야 할 것이다.[9] 이러한 점은 필암서원의 공간구성 형식을 논할 때도 재고해야 할 사항이다. 현재의 서원건축에 대한 연구 대다수가 현존하고 있는 건축물과 공간 내용을 중심으로 논의하고 있기 때문이다.

2-2. 공간구성 내용과 그 형식의 변천에 대한 고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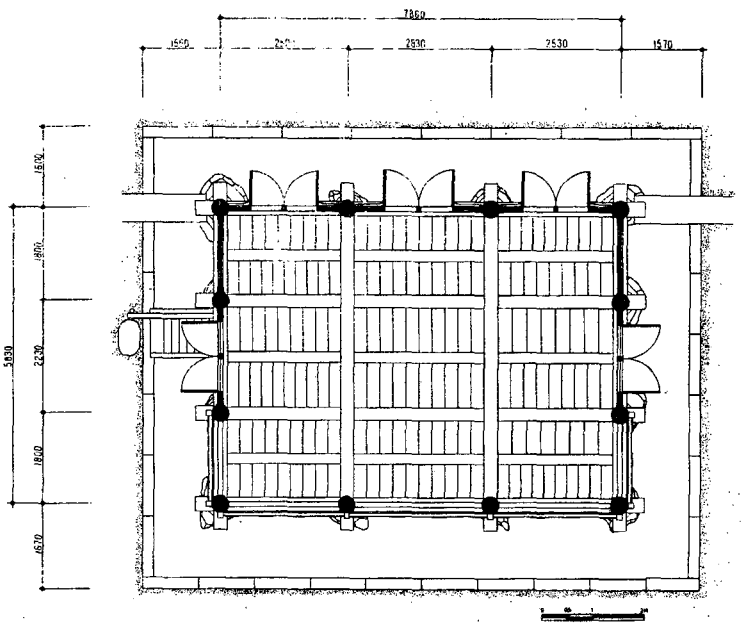
현재 필암서원과 서원을 구성하고 있는 건축물들에 대한 개략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송병선이 쓴 「廟庭碑」에 의하면, 필암서원의 '筆巖'이라는 명칭은 하서의 고향인 맥동에 붓처럼 예리한 형상의 바위가 있었기 때문에 붙여진 것이라 한다.[10] 그리고 현재 맥동 입구에는 큰 바위가 있는데, 그 뒷면에는 屛溪 尹鳳九(1681-1767)가 쓴 '필암'이라는 글자가 새겨져 있다.[11]

9. 김지민, 『한국의 유교건축』(발언, 1997), pp.117-118.
10. 『筆巖書院誌』 卷 二 (필암서원, 1975), pp.23-24.
11. 문화재연구소, 『文化遺蹟總攬』(문화재관리국, 1977), p.406.



1



2

<그림 2> 1. 확연루 1층 평면 2. 확연루 2층 평면

廓然樓는 2층으로 된 누각식 건물로 편액은 송시열이 썼다 정북향으로 현종 13년(1672)에 사우 이건과 함께 현 위치에 건축되었으며, 영조 20년(1744)에 보수하였으나 화재로 소실되어 영조 28년(1752)과 영조 36년(1760)에 중건하게 된다. 최초 건립 연대는 인조 2년(1624)으로 추정된다. (<그림 2> 참조)

淸節堂은 전면 5칸, 측면 3칸의 강당으로 편액은 송준길이 썼다. 북향으로 중앙 3칸은 대청으로 되어 있으며, 남측면에는 들어열개식의 창호가 설치되어 있다. 김시찬이 쓴 「廓然樓記」에 의하면, 강당은 필암서원이 사액을 하사받기 이전에 이미 건립되었음을 알 수 있다.[12] 영조 20년(1744)과 1938년, 1941년에 개수 과정을 거쳤다.

사당인 祐東祠는 정면 3칸, 측면 2칸 규모이며, 정면은 퇴칸으로 처리되어 있다. 편액의 글자는 안규용이 朱熹의 글자를 모아 만든 것이며, 명칭은 「神道碑銘」 가운데에 '하늘의 도움으로 동방에 (하서가) 종생하였다(天祐我東鍾生)'라는 구절에서 '祐'와 '東' 두 글자를 따왔다. 건축 연대는 1590년대로 추측되며, 고종 23년(1886)과 1941년 두 차례의 중건 과정을 거쳤다.

敬藏閣은 정면 3칸, 측면 1칸 구조이다. 인종이 하사한 어필 묵죽도와 묵죽도 판각을 소장하고 있다. 명칭과 편액은 정조가 쓴 것이라 하며 건립 연대는 정조 연간으로 추측되며 문헌상의 기록[13]에 따라 양자징이 배향된 정조 10년(1786) 이후에 건립된 것으로 추정된다. 고종 24년(1887)과 1938년 두 차례의 개수 과정을 거쳤다.

東齋와 西齋는 각각 進德齋와 崇義齋로 불리며 건립 연대는 강당과 비슷한 시기였을 것으로 추측된다. 재생들에 관한 기록인 院籍이 숙종 34년(1708)부터 시작되며 당시에 이미 院任을 포함하여 모두 382명이 등재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아 이전 시기부터 兩齋가 건립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각각 정면 4칸, 측면 1칸 반 규모로 앞면 반 칸은 퇴칸으로 처리되어 있다. 중앙 두 칸은 마루로 처리되어 있으며 동서재 모두 중앙 두 칸과 중앙 두 칸의 퇴칸, 좌우 퇴칸의 마루 높이가 각각 다르게 처리되어 있어 위계를 표현하고 있다. 또한 서재는 중앙 두 칸을 마루로 처리하되 벽체와 문을 달아 방으로 처리한 점에서 동재보다 위계가 낮음을 표현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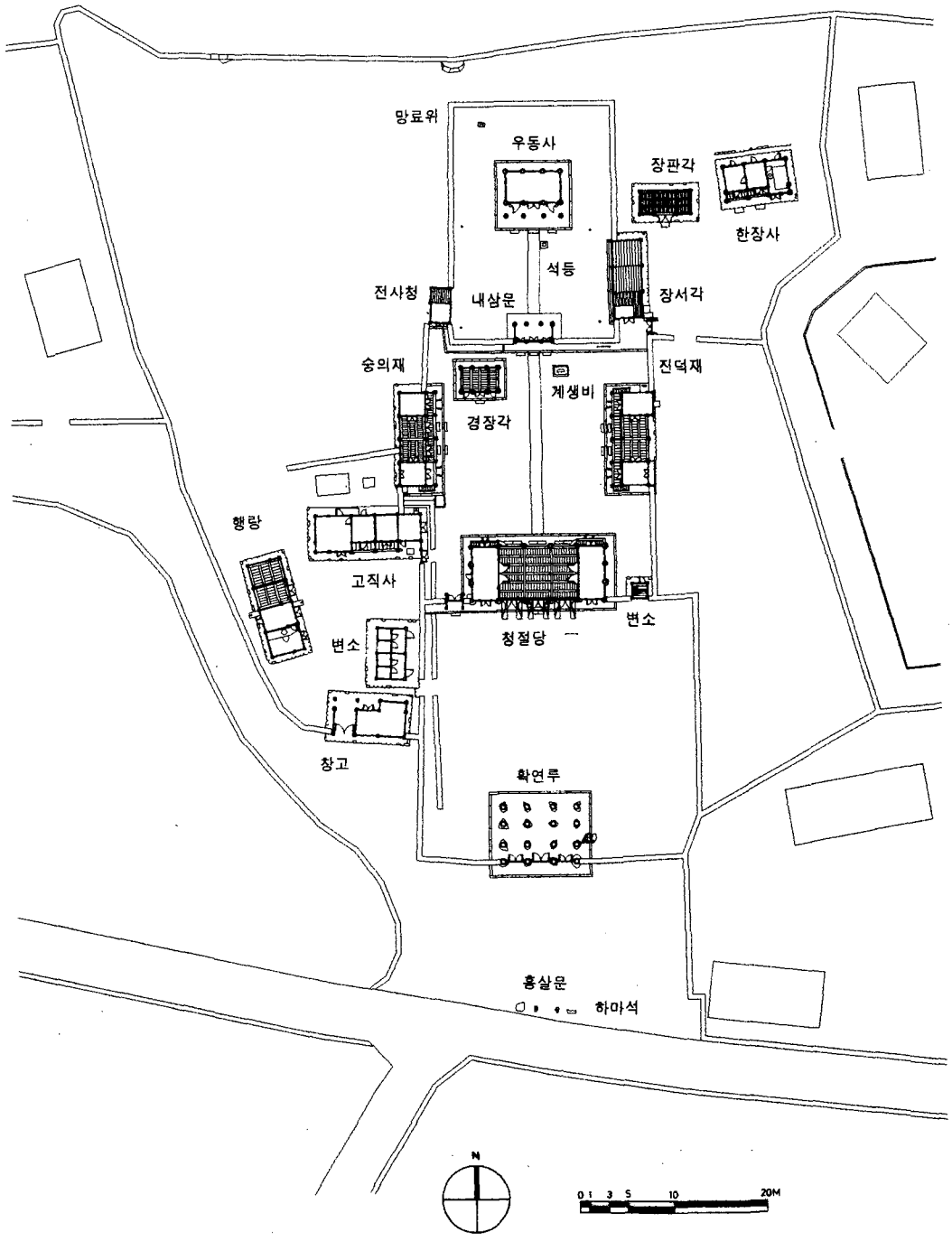
典祀廳은 정면 1칸, 측면 2칸 규모로 종보에 기록된 상량문에는 1844년에 지었다고 되어 있다. 그러나 제수를 보관하는 기능상 증산에 이건된 시기에 최초로 지어졌을 가능성이 높다.

藏書閣은 정면 1칸, 측면 3칸 규모로 현존하는 장서각은 1970년에 지어졌다. 「藏書閣記」에 따르면 기존의 장서각이 이를 다 수용할 수 없어 전사청 좌측에 새로이 3칸 네 동을 지었다고 한다. 따라서 이전의 장서각은 이보다 규모가 작았을 것으로 판단되며 서재 후면에 있었을 가능성이 높다. 藏板閣은 정면 3칸, 측면 1칸 규모로 1971년에 지어졌다.

汗丈舍는 대부분의 건물이 남북 자오선을 기준으로 남향 혹은 북향하고 있는데 반하여 약간 동남쪽을 향하고 있다. 노비의 우두머리 격인 汗丈이 거주하는 건물이며 한장이 독립적으로 이용하는 외부와 연결된 협문을 갖추고 있었다. 부엌을 갖추고 있는 구조로 보아 현재의 고직사가 지어지기 이전에 고직사의 역할을 담당하였을 가능성도 있으며 노비가 지급된 1662년을 전후하여 지어졌을 가능성 또한 높다. 다만 현존하는 한장사의 건립 연대는 정확히 알 수 없다.

庫直舍는 정면 4칸, 측면 1칸 반 규모이며, 중앙 두 칸에는 툇마루가 설치되어 있다. 서측면은 강당을 면하고 있으며, 좌우측에 독립된 화로 시설을 갖추고 있다. 고종 23년(1886)에 신축되었으며 이후 다섯 차례의 개보수 과정을

12. 『河西全集』 下卷 (필암서원, 1993), p.526.
13. '…무릇 세 번 옮겨 이곳에 안향하고 양고암을 배유하였다. 사우 앞에 한 각을 설치하여 효릉의 묵죽도와 선생의 유집판각을 봉장하였으며…「筆巖書院 廟庭碑」 필암서원, 『河西全集』 下卷 (필암서원, 1993), p.536.



<그림 3> 필암서원 배치 현황도

거쳤다.

行廊은 정면 4칸, 측면 1칸 규모로 1926년에 신축되었으며 현재 제기, 제수 등을 보관하는 용도로 사용되고 있으며 독립적인 화로 시설이 설치되어 있어 마루로 처리되어 있는 우측 두 칸을 제외하고 침식이 가능하다.

창고는 고직사 영역으로 통하는 출입문을 포함하고 있으며 정면 3칸, 측면 1칸 반 규모이다. 고종 31년(1894)에 신축되었으며 1967년에 한 차례의 해체 보수 과정을 거쳤다.

협문은 현재 청절당 서측, 고직사 동측, 장서각 서측에 각각 하나 씩 모두 세 곳에 있으나 『筆巖書院誌』에 등재된 「書院全圖」에 의하면 한장사 영역과 동재 후원 사이에 하나, 한장사 영역에서 외부로 통하는 협문 하나 등 두 개가 더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이상에서 언급한 필암서원을 구성하는 현황 건물로 이루어진 배치 현황도는 <그림 3>과 같다. 서원은 남북축을 중심으로 그 중심선상에 남쪽부터 북으로 차례로 확연루, 강당, 내삼문, 사당이 배치되어 있다. 이러한 공간구성은 물리적인 구조물을 중심으로 본 것이며, 실제로 서원 영역 내에서의 공간 형성과 사람들의 이동 경로는 북향한 강당 前面이 그 시발점이 되고 있다. 이것은 강당이 북향하고 있는 前堂後齋식 배치에서만 볼 수 있는 것으로 서원 본래의 목적이 향사와 교육이었던 점을 감안할 때 이러한 배치 형식은 그 목적을 최대한 충족시키는 방식이다. 이는 강당이 남향하고 兩齋가 강당의 前面에 놓임으로써 교육의 기능을 중요시하였던 前齋後堂식 배치와 대비되는 형식이다. 이는 선현의 위패가 모셔져 있는 사당으로 진입하는 내삼문을 향하여 강당이 면하게 하여 보다 적극적인 공간 형식을 구현한 방식이다.

특히, 향사 때 제관들이 강당의 마루에서 의례를 시작하여 사당으로 진입하는 출발점으로 강당 북측면 중앙칸을 잡고 있다는 점, 兩齋가 향사를 전후하여 제관들의 숙박 장소로 사용되었다는 점, 서원에서 이루어지는 의례가 士相見禮, 鄕飮酒禮, 瞻謁禮 등 산 사람이 중심이 된 의례와 充腊禮, 祭物奉進禮, 享祀 등 死者가 중심이 된 의례로 구분되어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 등이 교육과 향사가 하나가 된 前堂後齋 형식의 공간을 형성한 사실을 뒷받침해주고 있다.

이상의 논의를 종합하면 필암서원의 공간구성은 사당을 頂點으로 하여 강당과 양재 등이 만들어 내는 중심 공간을 향하여 내부지향적 공간을 형성하였다고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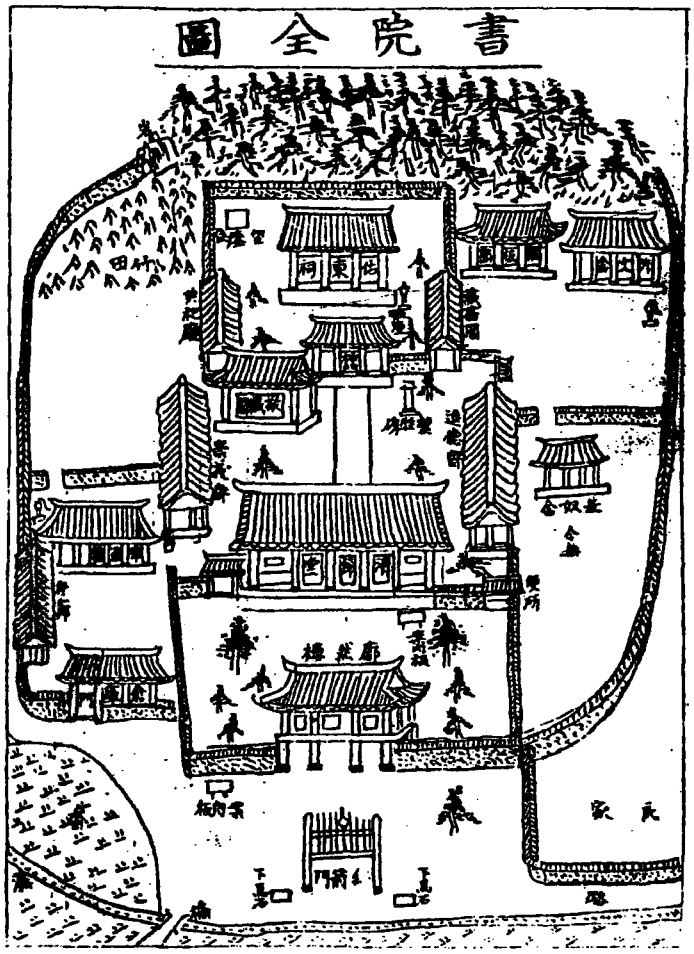
이상에서 언급한 건축물 외에 필암서원을 구성하였던 건축물로 현존하지 않지만 기록상에 존재했던 講需廳, 差奴舍 등이 있다.

講需廳은 서원에 입학하기 위한 전단계의 학생들이 이용하였던 기숙사와 창고의 역할을 하였다. 건립 연대는 정조 원년(1776)이며 쌀 40곡과 학생 18인이 숙식할 정도의 규모[14]였던 점으로 미루어 보아 사당 서측에 강당과 비슷한 규모로 있었던 건축물이었을 가능성이 높다.

차노사는 <그림 4>의 「書院全圖」에서 보는 바와 같이 동재 후면에 위치하고 있었다. 정면 3칸의 규모였으며 노비가 거주하던 곳이었으나 일제시대를 거치면서 노비가 사라지게 되자 자연히 사용치 않다가 철거된 것으로 추측된다.

이외에도 현재 강당 남측 후면에 연못이 있었던 사실이 파악되었다. 연못은 필암서원이 창건된 기산에 있었을 당시에도 서원 내부 혹은 인근 지역에 위치하였던 것으로 파악된다. 『河西全集』에 수록된 趙憲(1544-1592)의 「淸節堂題詠」에는 '溪亭'이라는 싯구가 나온다. 조헌의 생몰 연대를 참고하였을 때 최초로 건립되었을 당시에는 사묘와 함께 연못과 누정 형식의 건축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형식이 증산에 이건된 필암서원에 문루 형식의 건축을 만들게 된 계기가 되었을 가능성이 크다.

14. 『筆巖書院誌』 卷 二 (필암서원, 1975), p.22.



<그림 4> 서원 전도

증산에 이건된 이후에도 연못은 서원을 구성하는 요소였던 것으로 추측되며, 현 위치에 이건된 이후에도 각 문헌상의 기록에 의하면 청절당 앞에 원내의 습기를 한데 모으기 위한 실용적 목적을 겸하여 연못을 팠던 것으로 보인다.[15] 송명흠이 지은 「확연루 상량문」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언급되고 있다.

유생은 經을 놓고 해석하며, 巧匠은 도면을 보고 공을 아뢴다. 위로는 樓이고 아래로 문으로 그 규모는 예전 그대로 이지만, 산을 두르고 물에 다다라 보며 듣는 것을 새로워진 것이다. 우물은 조촐하고 골목이 좁으니 顔亭의 풍류는 변하지 않고 연못은 향기롭다. 뜰은 푸르고 濂門의 吟弄은 가이없다.[16]

이 글은 영조 28년(1752) 화재로 소실된 확연루를 중건하면서 쓴 것으로 여기서 볼 수 있듯이 그 건축 형식이 이전의 형식을 답습하였으며 연못이 있었음을 입증하고 있다.

15. 김진웅, 『仁宗昇遐와 金河西 節義』(동명출판사, 1996), p.253.

16. 『筆巖書院誌』 卷 二 (필암서원, 1975), p.21.

<표 1> 필암서원 구성 건축물 연대별 변화표

시기 구분	구성 건축물	내용
최초 건립 - 1590년	사당, 신문, 누정 형식의 건물 1동 - 총 3동	단순한 사묘 기능 중심
사액 전후 - 1662년	사당, 내삼문, 동재, 서재, 강당, 문루, 전사청, 한장사, 장서각 - 총 9동	사액으로 교육 기능 정비
고암 배향 - 1768년	사당, 내삼문, 동재, 서재, 강당, 문루, 전사청, 한장사, 장서각, 차노사, 경장각, 강수청 - 총 12동	경장각 및 강수청 신축
영역 확장 - 1886년	사당, 내삼문, 동재, 서재, 강당, 문루, 전사청, 한장사, 장서각, 차노사, 경장각, 강수청, 고직사, 창고 - 총 14동	고직사 영역 생성
현재 - 1998년	사당, 내삼문, 동재, 서재, 강당, 문루, 전사청, 한장사, 장서각, 경장각, 고직사, 창고, 장판각, 행랑 - 총 14동	장서각 규모, 위치 변경 차노사, 강수청 없어짐 장판각, 행랑 신축 석등 건립(1926)

이상에서 언급한 각각의 건물 연혁을 중심으로 필암서원을 구성하였던 건축물들을 시대별로 구분하여 정리하면 <표 1>과 같으며 현재 필암서원을 구성하고 있는 건물들에 관한 내용을 정리하면 <표 2>와 같다.

이상의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각 시기별로 건물 배치도를 작성하면 다음 그림과 같다. 먼저 기산에 최초로 건립될 당시 건축 규모를 논하기에는 부적합하므로 사액을 전후한 1662년의 배치부터 보면 현재의 배치와 사뭇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음을 알 수 있다.(<그림 5> 참조)

두 번째로 양자징이 배향되고 경장각과 강수청이 신축된 1786년을 전후한 배치를 보면, 강수청은 서원 영역 내에 있으나 외부와 직접 통하는 출입문은 따로 갖추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시기의 필암서원은 확연하게 기능별 공간이 구분된 서원으로 구성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강수청, 한장사 영역 역시 별도의 출입문을 지니고 있다는 사실이 이를 뒷받침해 준다.(<그림 6>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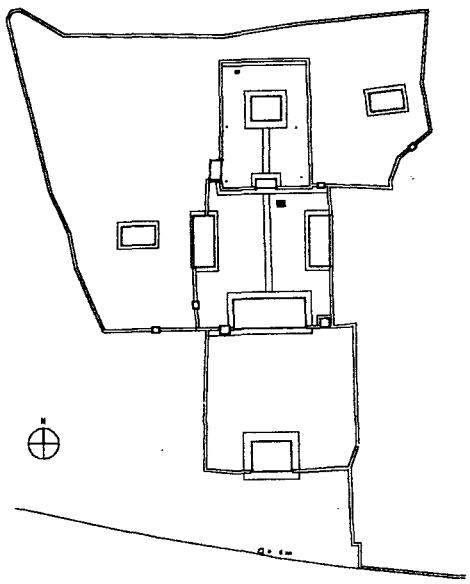
세 번째로 고직사 영역이 만들어지는 서원을 보면, 이 역시 독자적인 별도의 출입 시설을 갖추고 있다. 고직사가 지어지기 전까지는 한장사가 고직사의 기능을 담당하고 있었던 것으로 추측된다. 고직사 영역은 창고와 함께 독립 공간으로 구분되어 있으며 역시 별도의 출입 시설을 갖추고 있다.(<그림 7> 참조)

이러한 과정을 거쳐 현재는 강수청과 차노사가 철거되고 대신 행랑과 화장실 두 동이 신축된 배치를 하고 있다. 화장실은 <그림 3>에서 청절당의 동측에 있는 한 칸 규모의 작은 것과 고직사 영역의 것 두 동이다. 청절당 동측의 화장실은 그 건립 연대에 관한 기록이 전무하며 다만 고직사 영역의 화장실은 고직사가 만들어지면서 차후에 건립된 것으로 파악되며 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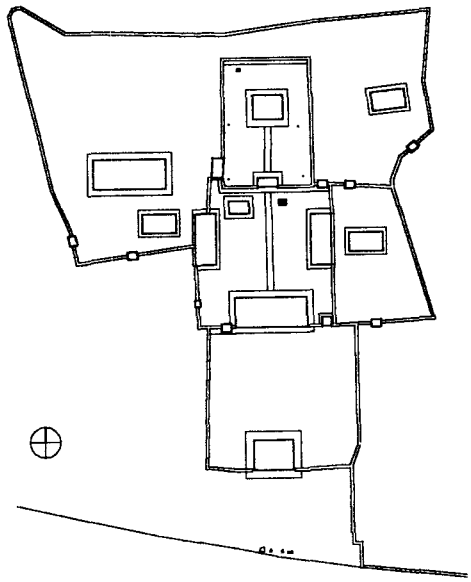
<표 2> 필암서원 개별 건축물 개요

건물명	주초 기단	기둥 가구	도리 공포	평면(정면×측면)	천장 지붕	풍판 설치 막새 기와
문루	막돌(大)	원기둥	굴도리	3×3 : 9칸 2층 우물 마루	연등/회바름	없음
	장대석 1단	5량가	주심포/2익공		팔작/겹처마	있음
강당	막돌	원기둥	굴도리	5×3 : 15칸 중앙 3칸 우물 마루 좌우 1칸 온돌방	연등/회바름	있음
	장대석 1단	5량가	초익공		맞배/홑처마	없음
동재	막돌	각기둥	납도리	4×1(퇴칸 2칸) : 6칸 전면 퇴칸 중앙 2칸 우물 마루 (서재 마루 폐쇄 가능)	연등/회바름	없음
	장대석 2단	5량가	민도리		맞배/홑처마	없음
서재	막돌	각기둥	납도리		연등/회바름	없음
	장대석 2단	5량가	민도리		맞배/홑처마	없음
경장각	2단 원통형	원기둥	굴도리	3×1 : 3칸 우물 마루	연등/회바름/단청	없음
	장대석 1단	3량가	1출목 2익공		팔작/겹처마	있음
내삼문	원통형	원기둥	굴도리	3×1 : 3칸 시멘트 마감	연등/회바름 단청	있음
	장대석 2단	3량가	1출목 2익공		맞배/홑처마	있음
사당	전면 8각 후면 원통형	굴도리	굴도리	3×1.5 : 4칸 반 시멘트 마감	연등/회바름/단청	있음
	장대석 2단	5량가	1출목 2익공		맞배/겹처마	있음
전사청	막돌	납도리	납도리	1×2 : 2칸 일부 틀마루	연등/회바름	없음
	장대석 1단	3량가	민도리		맞배/홑처마	없음
장서각	마름모꼴	납도리	납도리	1×3 : 3칸 일부 틀마루 일부 시멘트 마감	연등/회바름	없음
	장대석 1단 및 막돌 3단	3량가	민도리		맞배/홑처마	없음
장판각	원통형	각기둥	굴도리	3×1 : 3칸	연등/회바름	있음
	막돌 3단	3량가	민도리		맞배/홑처마	없음
한장사	막돌	각기둥	납도리	3×2 : 6칸 한 칸은 퇴칸, 우물 마루	알 수 없음	없음
	막돌 2단	5량가	민도리		맞배/홑처마	없음
고직사	막돌	각기둥	납도리	4×1.5 : 6칸 5칸 온돌방, 1칸 마루	알 수 없음	없음
	막돌 1단	5량가	민도리		맞배/홑처마	있음
행랑	막돌	각기둥	납도리	4×1 : 4칸 우측 3칸 우물 마루	연등/회바름	없음
	막돌 1단	5량가	민도리		맞배/홑처마	없음
창고	막돌	각기둥	납도리	3×1.5 : 4칸 반 한 칸 반은 문	연등/회바름	없음
	막돌 1단	5량가	민도리		맞배/홑처마	없음
변소 1	막돌	각기둥	납도리	1×1 틀마루	연등	없음
	막돌 1단	·	민도리		사모/홑처마	없음
변소 2	사각형	각기둥	납도리	2×1	연등	없음
	막돌 1단	3량가	민도리		맞배/홑처마	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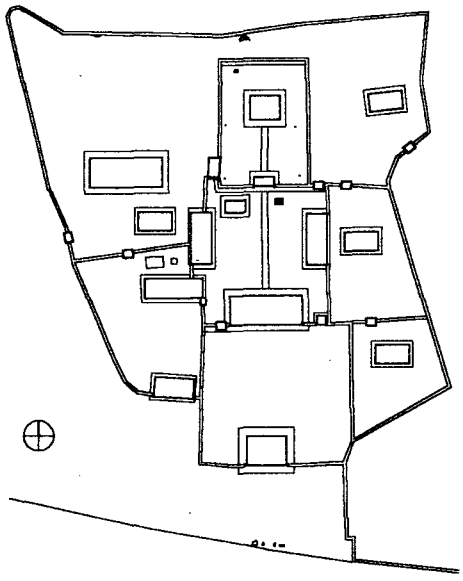
존하는 것은 최근에 신축한 것이다. 청절당 동측의 화장실 역시 1997년에 같은 위치에 같은 규모로 재축된 것으로 실제 사용되지 않고 있다.(<그림8>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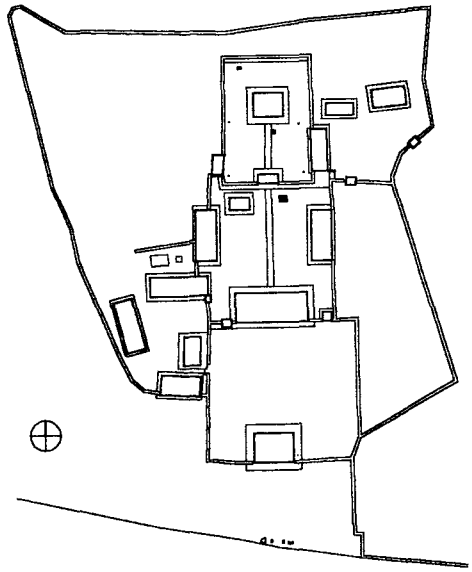
<그림 5> 1662년의 필암서원 추정 배치도



<그림 6> 1786년의 필암서원 추정 배치도



<그림 7> 1886년의 필암서원 추정 배치도



<그림 8> 1998년의 필암서원 현황 배치도

3. 결론 및 종합 정리

이상으로 필암서원 건축의 변화 과정에 대하여 관련 사료와 현황을 기반으로 고찰하여 보았다. 본 연구 과정에서 얻은 필암서원 건축과 관련된 사항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필암서원은 모두 두 번의 이건 과정을 거치게 된다. 이들 터의 공통된 사항으로는 물이 모이거나 물이 흐르고 있는 지점과 근접하여 건립된 점을 들 수 있고, 또 현재의 터는 풍수적인 내용이 고려되어 잡았음을 알 수 있다.

2. 현재 필암서원은 평지에 건립되어 있으나 확연루 등 건축물은 경사지에 세워진 건축의 특성을 보여주고 있다. 이는 이건 이전의 필암서원 터가 경사지였으며 현재의 필암서원 건축은 이러한 이건 이전의 건축 형식을 일부 반영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3. 필암서원은 두 번의 이건 과정을 거치면서 건축 공간이 확장됨을 보여주고 있다. 기산에 창건될 당시는 사묘 위주의 단일 건물 내지 누정 형식의 두 동 전후의 건물로 조촐하게 배치되었고, 증산에 이건되면서 교육과 제향의 기능을 모두 수행하는 본격적인 서원건축 형식을 갖추기 시작하였으며, 마지막으로 현위치에 이건되면서 기타 제반 시설을 갖춘 서원으로 확장되었음을 알 수 있다.

4. 필암서원은 철거된 두 동의 건물을 포함하여 모두 열 여섯 동의 건물로 이루어졌었으며 각각의 공간은 독립된 영역으로 구분되어 있었으며, 각 독립 영역은 외부와 통하는 별도의 출입문을 지니고 있어 고유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상 본 연구에서 알 수 있는 것과 같이 서원건축에 관한 연구는 그 복원적 고찰을 통하여 건축 공간에 대한 분석을 할 때 서원이 실제적으로 사용되었던 당시의 건축 공간의 이용 행태를 올바로 파악하는데 도움을 줌을 알 수 있다. 예를 들어, 필암서원의 경우 前堂後齋의 배치를 하면서 평지에 세워진 것도, 실제로는 현재로 이건되기 이전의 터가 경사지에 세워졌던 건축 형식을 반영한다는 점을 들 수 있기 때문이다.

참고문헌

김은중, 『한국의 서원건축』, 기문당, 1995
김지민, 『한국의 유교건축』, 발언, 1997
김진웅, 『仁宗昇遐와 金河西 節義』, 명성출판사, 1996
문화재연구소, 『文化遺蹟總攬』, 문화재관리국, 1977
장성군사편찬위원회, 『長城郡史』, 장성군, 1982
필암서원, 『筆巖書院誌』, 필암서원, 1975
필암서원, 『河西全集』, 필암서원, 1993

A Study on the Architectural Characteristics of Pilamseowon

Zo, Sang Soon
(National Research Institute of Cultural Properties of Korea, Researcher)

Lee, Sang Hae
(SungKyunKwan University, Professor)

ABSTRACT

Seowon(書院) was an institute for education and sacrificial rite, established privately in rural villages throughout the middle period of the Chosun dynasty(1392-1910), where scholars researched classic studies, cultivated personal characters in accordance with the Neo-Confucianism, nurtured young disciples, and performed rites at a secluded shrine where spiritual tablets of honorees were housed.

This study examines the architectural characteristics of Pilamseowon(筆巖書院) in Chans'seong, Chollanamdo Province, Korea. Through the study, the architectural characteristics of Pilamseowon were found as follows:

First, Pilamseowon moved twice since it had been established.

Second, through the moving, the area of Pilamseowon was expanded and buildings were added.

Third, some buildings of Pilamseowon reflect the previous condition of the seowon site. Take Hwakyeonroo(廓然樓) as an example, which is the main entrance pavilion of Pilamseowon. Pavilion is an appropriate type of building in sloped site. Before Hwakyeonroo was moved to the present site, it was located on sloped site, where Hwakyeonroo accordingly took the pavilion type of building. Present site condition of Pilamseowon is plane, nonetheless, Hwakyeonroo has the pavilion type of building, which reflects the previous condition of the building site.

Forth, Pilamseowon consists of six spatial domains and each domain has its own entrance gate to outer area.